

9월 시

확인 ☆ ☆ ☆ ☆

<p>1. 2024. 9. 25. (수) 15:05까지</p> <p>엄마야 누나야</p> <p>김소월</p> <p>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</p> <p>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 빛</p> <p>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</p> <p>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</p>	<p>2. 2024. 9. 25. (수) 15:05까지</p> <p>어떤 마을</p> <p>도종환</p> <p>사람이 착하게 사는지 별들이 많이 떴다. 개울물 맑게 흐르는 곳에 마을을 이루고 물바가지 떠 담던 접동새 소리 별 그림자 그 물로 쌀을 씻어 밥 짓던 냄새 나면 굴뚝 가까이 내려오던 밥티처럼 따스한 별들이 뜬 마을을 지난다.</p> <p>사람이 순하게 사는지 별들이 참 많이 떴다.</p>
<p>3. 2024. 9. 25. (수) 15:05까지</p> <p>굴뚝</p> <p>윤동주</p> <p>산골짜기 오막살이 낮은 굴뚝엔 몽기몽기 웨인 연기 대낮에 솟나.</p> <p>감자를 굽는 게지 총각애들이 깜박깜박 검은 눈이 모여 앉아서 입술에 꺼멓게 숯을 바르고 옛이야기 한 커리에 감자 하나씩.</p> <p>산골짜기 오막살이 낮은 굴뚝엔 살랑살랑 솟아나네 감자 굽는 내.</p>	<p>4. 2024. 9. 25. (수) 15:05까지</p> <p>별</p> <p>이병기</p> <p>바람이 서늘도 하여 뜰 앞에 나섰더니 서산머리에 하늘은 구름을 벗어나고</p> <p>산뜻한 초사흘달이 별과 함께 나오더라</p> <p>달은 넘어 가고 별만 서로 반짝인다 저 별은 뉘 별이며 내 별 또 어느 게요 잠자코 호올로 서서 별을 헤어 보노라</p>